동국대WISE캠 '역대급 장학금' 쾌척

문무관서 미래불자장학금 수여
717명에 총 7억1700만원 전달
학교 장학금 수여 중 최대 규모
돈관 스님 "미래불교 주인되길"



학교법인 동국대가 지난해 12월 13일 동국대 WISE캠퍼스 문무관(체육관)에서 '제91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가 지난해 12월 13일 동국대 WISE캠퍼스 문무관(체육관)에서 '제91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717명으로, 지난 동국대 청년불자 축제 영캠프에서 수계를 받고 동국대 불교동아리에서 신행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재학생들이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불교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 불교종립대학 소속의 청년불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장학증서 수여는 717명의 동국대 학생에게 각 100만원, 총 7억1700만원을 전달해 동국대 장학증서 수여식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는 미래불자 양성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수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정각원장 철우 스님, 박기련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학생 대표 및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수혜 학생 등 사부대중 900여명이 동참했다.

수여식은 개회사와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 불교동아리 소개 영상 시청, 장학증서 수여식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수여식 이후 학생들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을 축하하며 꽃다발과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여러분이 동국대의 주인공이자 한국불교의 주인공"이라며 "주인공의 덕목은 대학생으로서 수계를 받고,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와 법회를 통해 부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알고 초연함을 덕목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을 이해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어느 곳에 있든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길 바란다. 여러분들은 동국의 주인공이자 미래 불교의 주인공"이라고 힘줘 말했다.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불제자로 성장해 연꽃 속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건학위원회는 "불교동아리 소속 학생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광사 '법화경' 석경 점안…"세계평화 발원"

12월 18일 대보탑서 회향법회
장엄불벽 석경 개분불사 진행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십삼존불 팔면 구층 대보탑 앞 특설무대와 지관전에서 '법화경' 석경 점안식 및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십삼존불 팔면 구층 대보탑 앞 특설무대와 지관전에서 '법화경' 석경 점안식 및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 법화경 석경은 1997년 대웅보전 옆 오십삼존불 팔면 구층 대보탑 벽 상단에 새겨 둔 장엄 불벽이다. 삼광사는 석경에 붉은색 안료인 경면주사(鏡面朱砂)가 벗겨져 새롭게 보수하는 석경 개분 불사를 통해 세계평화와 불국토를 발원하며 세운 대보탑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겼다. 대보탑에는 미얀마에서 온 불사리 7과와 달라이라마가 보낸 불사리 3과, 스리랑카 대통령이 전달한 불사리 1과 등 총 11과의 불사리가 봉안돼 있다.

점안식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회향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경과보고 △표창패·감사패 수여 △회향 법어 △치사 △축사 △축가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스님은 원로원장 정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불법의 융성으로 나라가 태평하길 염원하며 조성된 대보탑의 석경이 삼광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다시 그 장엄하게 나투었다"며 "세세생생 바른 법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원력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며 성불을 길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길 바란다"고 법문을 전했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신라의 황룡사 구층목탑과 고려의 팔만대장경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불사였듯이 삼광사 대보탑은 세계평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으로 담았다"며 "대보탑 후면 불벽에는 '법화경' 중 여섯품이 새겨져 있다. 불사 회향 공덕으로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광사 대보탑은 기단 폭 14.55m, 전체 높이 30m이다. 진신사리 11과가 봉안된 동양 최대 석탑으로 세계평화 및 통일, 불국토 건설의 발원을 담아 봉안됐다. 탑 후면 장엄불벽은 높이 8m, 폭 50m로 상·하단 각각 14면의 구조며 전북 익산군 화강석으로 조성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제포교사회 싱잉볼 소리 명상 워크숍

12월 14~15일 부산 홍법사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스님)가 싱잉볼 소리 명상을 통해 전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홍법사 싱잉볼치유의소리 명상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워크숍은 국제포교사에게 싱잉볼 소리명상을 소개하고, 'K-명상'의 활성화에 발맞춰 전법을 위한 도구로 삼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회장 정혜 스님을 비롯해 예비국제포교사와 봉사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으며, 이틀 간 싱잉볼에 대한 이해와 호흡명상, 팅샤 연습, 바디스캔 명상 등 다채로운 강의에 참여했다. 단원들은 마지막 회향의 자리에서 소감을 나누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리 명상을 체험하고 알게 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회장 정혜 스님은 "마치 천상에 올라간 듯 깨어있음의 시간이었고 나를 깨우는 큰 울림을 느낀 시간이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7회 실상문학상 대상에 배기환·이소정

12월 14일 홍법사서 시상식



제27회 실상문학상 대상에 배기환 시인과 이소정 시인이 공동 수상했다.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이사장 심산 스님)는 지난해 12월 14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27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수상자는 대상에 배기환 시인과 이소정 시인이 공동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노정숙, 배동순, 정명희 시인이 수상했다. 작품상은 김만옥 시인이 시조 부문은 한시용 작가, 배주석 수필가가 수상했으며, 신인상에는 하소남 수필가, 장효영 시인이 수상했다. 이 외 김성화 시인과 왕선자 시조인은 봉사상, 고순옥 시인과 엄순남 시인은 부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수상한 모든 분들 축하드리며 불법 안에서 좋은 작품을 써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마이산탑사·복성산업개발, 백미나눔

부산 정관지구 공사현장서



마이산탑사(주지 진성 스님)와 ㈜복성산업개발(회장 박금태)이 지난해 12월 19일 부산 기장 정관읍에 위치한 정관지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사랑의 백미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마이산탑사와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정관읍 관내 주민들에게 백미 10kg 300포, 총 3000kg을 송영종 정관읍장에게 전달했다. 행사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라북도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을 비롯해 박금태 회장, 홍성구 부사장, 송영종 정관읍장, 정관읍 관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전달식과 영산대재를 통해 복성산업개발은 물론 정관읍 주민들 모두 무탈하고 번영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신뇨엔 서울정사


신뇨엔 부산정사

"신뇨엔은
인도, 환희, 봉사의 가르침 아래
불교적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眞如苑 신뇨엔

▷ 신뇨엔 서울정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46 / 전화 (02)719-6998
▷ 신뇨엔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 전화 (051)892-6998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 · 부산 · 제주 · 창원 ▷ www.shinnyo-enkorea.or.kr